

# 국 제 수 산 월 간 동 향

2023. 09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 외 수 산 협 력 센 터

## 목 차

1. 러시아, 내달 초부터 신규 수출세 부여 ..... 3
2. 바이든 정부, 해양 데이터 산업에 투자 증대 ..... 4
3. 노르웨이의 참다랑어 활어 저장 ..... 5
4. 바이든 행정부 해양보호구역에 반대하는 어업위원회 ..... 8

- 러시아는 10월 1일부터 수산물에 포함된 수출 품목에 4에서 7퍼센트가량의 수출세를 부여할 것을 발표하였음
-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이는 수출과 소비의 합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이며 임시방편으로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임
  - 본 결의 1538은 2024년 말까지 적용되며 관세 동맹의 해외 경제 활동(TN VED TS) 코드의 그룹3 목록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을 포함함
  - 관세율은 미국 달러와 러시아 루블 간의 환율과 연결되어 적용될 것
    - 1달러의 가치가 80루블 이하로 떨어질 경우 세율은 4퍼센트
    - 1달러의 가치가 80루블에서 85루블일 때 세율은 4.5퍼센트
    - 1달러의 가치가 90에서 95루블일 때 세율은 5.5퍼센트이며
    - 95루블 이상에서의 관세율은 7퍼센트가 적용됨
  - 관세율은 매달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결정하고 러시아 경제개발부에서 승인하는 환율에 따라 결정될 것임
  - 러시아 연방 수산단체에 따르면 러시아의 총 수산물 생산은 9월 18일 기준 400만 MT를 도달하였음
    - 이 중 771,000MT는 냉동 어류이며 가치는 \$15억 달러임
  - 러시아의 수출 증가의 주된 원인은 중국과의 무역 증대 때문임
    - Portnews에 따르면 러시아는 중국에게 \$17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81퍼센트 가량의 수산물을 보내고 있는 추세임
  - Rosrybolovstvo의 수장인 Ilya Shestakov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연어의 이동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2023년 캐비어 생산도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세계적인 제재가 러시아의 수산물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자부함
    - 그러나 선박 부품 등을 수입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어선들을 새롭게 개조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Seafoodsource<sup>1)</sup>

1)<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russia-tacks-additional-4-to-7-percent-duties-on-exports-including-seafood>

- 미 대통령 조 바이든의 행정부는 전세계 해양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교육 기관, 사기업, 공기업 등의 개발을 증진 시키는 신규 계획에 투자를 증대할 전망이다
  - 미 연방 상무부는 국립 해양 대기청과 함께 해양 기술 단체 (Marine Technology Society, MTS)에게 해양 사업의 증진을 위한 다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90만 달러를 제공할 것으로 나타남
    - 투자 기금은 바이든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Invest in America)의 아젠다의 일환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래 연안 회복 및 어업 지원을 위한 기금의 일부임
    - 미 상무부 장관 Gina Raimondo는 미국 해양 경제가 성장하기 위하여 해양 데이터 및 정보는 필수이며 이는 기후 변화 및 탄력적 회복 문제의 해결책을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음
  - MTS는 해양 사업 계획(Ocean Enterprise Initiative)를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촉진할 것이며 민-관 파트너십 기회를 찾아 나설 계획임
  - 사업의 주제로는 해양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 실시간 해양 기초 기준 데이터, 해양에서 주도된 재생산 에너지 변형, 해양 생태계 보존 등이 있음
  - 환경 조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청색 경제(blue economy)의 파급력이 향상되고 있어 해양 사업의 가치가 함께 급속도로 중요해지고 있음

출처: Seafoodsource<sup>2)</sup>

<sup>2)</sup><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biden-administration-invests-in-engagement-with-ocean-enterprise>

- 노르웨이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수산 과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참치 어종인 참다랑어를 잡아서 활어 상태로 저장하고자 해왔다.
- 그들은 마침내 성공했다. 조업선 Vestbris호는 노르웨이 수산청 선박 Fjordgyn호의 지원을 받아 Stad 연안에서 참다랑어 어획에 성공한 후, 특별히 제작된 운반 가두리로 참다랑어를 이전하여 해안으로 견인하였다.
- 그다음 주에, 그들은 동일한 작업을 더 큰 규모로 수행하였고, 운반 가두리에 22미의 참다랑어를 이전하였다.

#### 노르웨이해역의 참다랑어

-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한때 초과어획 상태에 있던 참다랑어 자원이 회복됨.
- 세계에서 가장 큰 참치 어종인 참다랑어가 이제 그들의 연중 먹이 기간 중 노르웨이 해역을 회유함.
- 2023년 노르웨이의 참다랑어 조업 쿼터는 383톤임.
- 노르웨이는 참다랑어 회유 범위 중 최북단 경계에 있음.
- 먹이가 풍부한 북쪽 해역으로 회유해 오는 어종 중 가장 덩치가 큼.

#### ■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 “마침내 성공하였다! 우리는 이 시범들을 통해 이미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해양연구소(IMR) 프로젝트 매니저 Manu Sistiaga가 말했다.
- 거대한 참다랑어를 활어 상태로 가두리에 저장할 수 있게 된 것은 노르웨이 참치 어업에서 성배와 같은 것이다. 지중해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조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전통적인 그물 어업을 통해서는 대량의 참다랑어 어획물의 좋은 품질이 유지되도록 신속하게 취급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한번이 아닌 조금씩 시장으로 출하하는 것의 이점이 있다.
- 활어 저장은 이 두가지 이슈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 과제들이 남아 있다.

## ■ 연구자들은 설계에 자신을 갖고 있다

- “우리는 이제 그물에서 운반 가두리로 통제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일 간의 견인 후에도 참다랑어가 가두리 안에서 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 가두리는 크고 깊은 공간을 만든다. 연구자들은 이 가두리 안에 50-100미의 참다랑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
- 해안에서, 연구자들은 가두리와 어류를 살펴보고, 전기를 이용해서 잔혹하지 않게 안락사시킨다.

## ■ 여러 가지 새로운 질문들을 제기한다

- Nofima와 IMR의 어류 품질 연구자들은 바다에서 잡아서 죽인 어류가 아닌 “활어 저장” 어류를 연구하기 위해 여러 개의 샘플들을 확보하였다.
-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최초의 운반된 어류에 대한 작은 샘플이 오슬로 시장에 보내졌다.
- “장기적으로, 우리는 참다랑어가 가두리 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고, 어떤 음식을 필요로 하고, 어떤 수온을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먼저, 어획, 이전 그리고 운반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Sistiaga는 말한다.

## ■ 수산국도 함께 한다

- 선박과 선원을 공급하는 것 외에, 수산국은 프로젝트 조정 및 ICCAT(대서양 참치보존위원회) 대응에 책임을 갖고 있다. 참다랑어는 엄격한 규제와 보고 사항들이 있다.
- “ICCAT 규정은 여기와는 조건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지중해 어업에 맞추어져 있다. 지중해에서는 많은 작업들에 다이버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수산국 프로젝트 매니저 Hermann Pettersen은 말한다.

## ■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 다른 ICCAT 회원국들에게 수용가능한, 지속가능하고 통제가능한 어업을 만들면서, 노르웨이 해역에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Pettersen은 믿고 있다.
- “우리 프로젝트는 관리자, 업계, 연구자 간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우리는 참다랑어 조업에 전문성을 가진 경험 많은 선원들을 가진 Vestbris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운을 가졌다.”고 그는 말한다.

출처: [partner.sciencenorway.no](https://partner.sciencenorway.no)<sup>3)</sup>

---

<sup>3)</sup><https://partner.sciencenorway.no/fish-fish-farming-fisheries/live-storage-of-bluefin-tuna-historic-success-in-norwegian-waters/2243115> (8월 31일 기사)

- 서부태평양어업관리위원회(WPFC)는 최근 회의에서 태평양 제도들에 새로운 해양보호구역을 수립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은 국가 해양보호구역법을 통해 태평양 제도들 주변 77만 제곱마일 해역을 완전하게 보존하는 새로운 해양보호구역을 수립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동 해역을 규율하는 기존의 어업규제들로 보존계획의 목적은 거의 달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 위원회 발표는 위원회 과학자문가들이 근해 산호초 보호와 같은 계획의 목적들은 이미 기존 어업 규제들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음을 위원회에 보고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 “추가적인 규제로 보호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워싱턴 대학 Ray Hilborn 교수는 말한다. “근해 산호초들은 이미 보호되고 있다 – 진정한 위협들은 어업이 아닌 기후변화에서 오는 것이다.”
- 위원회와 다른 지역 당국자들은 새로운 해양보호구역을 수립하려는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만약 수립된다면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보호구역이 될 것이다. 미국 사모아를 대표하는 Aumua Amata Coleman Radewagen은 7월에 개최된 회의에서 구역 지정은 어업과 통조림 가공 관련 일자리와 수출이 80%를 차지하는 사모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위원회 최근 회의에서, 사모아 출신인 WPFC 의장 Taulapapa Will Sword는 지역 어업이 점증하는 규제와 연료비 증가, 외국해역 입어료 증가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위원회 부의장 Taotasi Archie Soliai는 과학위원회로부터의 데이터는 보존 계획이 취약한 어종들에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 “데이터에 따르면, 태평양 제도들에서 현재의 어획노력은 해양보호구역의 서식지 또는 어종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Soliai는 말한다. Soliai는 보호구역 수립은 다른 국가들로 어업 활동을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 “질문은 ‘누가 금어수역으로부터 이득을 얻는가?’이다. 중국, 일본, 대만이다. 이러한 누적적인 영향으로 미국 선망선들은 다른 국가들로 선적을 변경할 것이다. 태평양 동쪽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박들은 더이상 Pago Pago에서 어획물을 하역하지 않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통조림 공장을 위한 원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공장은 문을 닫을 것이다.”
- WPFMC 사무국장 Kitty Simonds는 보호구역 지정을 “연방의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 위원회는 또한 지역 어업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들을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과학자문가들이 위원회에 제안한 것이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NOAA 해양보호구역 당국이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미국에서 어업관리위원회가 해양보호구역에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에, WPFMC를 포함한 8개의 어업관리위원회가 NOAA에 상업어업 전면 금지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었다.

출처: [www.seafoodsource.com](http://www.seafoodsource.com)<sup>4)</sup>

---

<sup>4)</sup>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fisheries-council-opposes-biden-administration-s-plans-for-new-marine-monument> (9월 20일 기사)